안 쓰는 만 원짜리

(행7:54~60)

54.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57.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안 쓰는 만 원짜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안 쓰는 만 원짜리.
신학교 1학년 때 1학기를 마치고, 2학기를 시작할 무렵에 결혼을 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참 어렵게 살 때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가운데 그냥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결혼생활을 하며 사는 동안에, 처할머니 댁에 자주 들렸습니다.
근데 그 댁에 집이 부산인 고종 처남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할머니 댁에 머물면서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 저와 집사람이 처할머니 댁을 찾아갈 때 가끔, 그 고종 처남들이 학교에 가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오디오를 듣기도 하고, 그 방에서 저는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방에 들어가서 있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그랬던 거 같아요.
방 여기저기, 그러니까 뭐 책상 위라든지 이런 데에 만 원짜리들이 뒹굴어 다닙니다.
뭐 좀 쓸 것이 필요해 가지고 책상서랍을 열면, 대부분 볼펜 뭐 몇 자루, 뭐 샤프펜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지우개, 조그만 자 뭐 이런 잡동사니가 같이 담겨져 있는 서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랍에 보면, 꼭 쓰지 않는 볼펜들과 같이, 만 원짜리들이 끼여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고종 처남이니까, 고모거든요. 집사람의 고모인데, 고모님 댁이 굉장히 잘 사는 부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압니다.
그러나 저는 실감을 못 하잖아요, 만나지를 못하니까.
근데 거기서 실감하는 거예요.
아니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 어떻게 만 원짜리가 책상 위에 뒹굴고 있는데 그걸 놔두고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 저희는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집사람 지갑과 제 지갑, 저는 지갑도 없었어요.
지갑도 사실은 없었고, 제 주머니에 있는 것 다 통틀어서 2,3천 원이 될까 말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고 살 때이니까, 만 원짜리가 책상 위에서 뒹구는 걸 보면, 아! 정말 잘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 만 원이면 저희들한테는 유동자산 급입니다, 거의.
근데 그 유동자산 급에 해당되는 만 원이 쓰지 않는 볼펜과 동급인 거예요.
쓰지 않는 볼펜 껍데기는 우리 집에도 있거든요.
볼펜 껍데기가 멋지다 보면 버리지 못하고 책상서랍에 놔두거든요.
그것과 동급인 거예요, 만 원짜리가.
이거 뭐 말이 됩니까? 아! 정말 잘 사는구나! 라는 걸 느낀 거예요.
저희는 벗어 놓은 이 겨울철 옷 있잖아요?
하도 돈이 없을 때에는, 혹시 그런 옷 속에 넣어 둔, 눈먼 천 원짜리라도 있나하고 뒤질 정도인데, 눈앞에 보이는 책상 위에, 책상 서랍에 만 원짜리가 안 쓴 채로 그냥 뒹굴어 다닙니다.
신학교 안 다녔으면 하나씩 갖고 왔을지도 몰라요, 유혹이 컸지요.

여러분, 오늘 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첫 번째로 있었던 순교 장면이니까요.
이 순교 장면을 대할 때마다, 절두산 성지를 가서 방문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절두산 성지보다 의미가 더 크지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순교 장면이니까.
근데 이 순교 장면을 대할 때마다 지워지지 않는 궁금증과 더불어, 생기는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순교 장면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조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제로원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을 보면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돼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까지 하면서 죽어 가시는 이 모습, 이 제로원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생기는 점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베드로 사도와 또 다른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가지고, 민간에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우리가 읽은 바대로 스테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똑같이, 사도들에 못지않게 민간에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스테반의 설교가 훨씬 더 월등해요.
베드로의 설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를 사건을 그대로 전합니다.
스테반은 구약을 십자가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런 해석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을 해석된 사건이라고 보면, 매번 설교 때마다 이건 해석된 사건입니다.
탁월한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가.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3,000명이 결실을 하고,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똑같이 성령 충만에 의한 설교였는데, 똑같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한 설교인데도,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분기탱천해서 결국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

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좋다 이겁니다, 백 번 양보해서.
성령 충만 받아 설교해도, 이게 목사님들의 로망이거든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설교해 가지고 크리소스톰처럼 사자후의 설교를 함으로써, 베드로 때처럼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설교 하시는 목사님들의 로망이지요.
근데 성령 충만 받아도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인정해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픔과 함께 생기는 의문점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게 해주는 감각의 역할을 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 충만 하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고, 주님을 봅니다.
그것은 거꾸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주님은 스테반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스테반이 못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지금 스테반이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눈동자가 마주친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고 있는 겁니다.

자, 눈과 눈이 마주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돌로 칩니다.
돌로 친다는 거는, 한 3,4m 거리에 두고 돌을 갖고 와서 내리 찍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죽지 않잖아요, 칼에 맞고 총에 맞아 죽는 것처럼.
돌로 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피를 막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스테반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하나님과 주님은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리시지는 않더라도 그 자리를 면하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 순교 장면을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까?
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 측면에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돌에 맞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스테반을 보고만 계시는가?
여러 측면에서 설명 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한 가지 관점을 붙들고 이해해 봅니다.

왜 그러시냐 하면, 하나님에게도 주님에게도 그리고 스테반 자신에게도, 육체가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삼자 누구에게도 상실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잃어버린다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죄 없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하나님이 스테반을 볼 때도, 스테반의 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무런 상실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스테반 자신이 느낄 때도 내 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아~무런 상실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 육체의 목숨이 가장 귀한 겁니다.
가치를 채우는 그릇이 있다 그러면, 그 가치가 꽉~ 차는, 소위 만땅이 되는 것, 가치 만땅의 존재가 바로 내 육체의 목숨입니다.
만 원이라는 거예요, 만 원.
가득할 만자에 만 원이에요, 만 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천문학적 재산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천국학적 재산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천문학적 재산, 다시 말해서 우주를 다 갖고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의 목숨이라는 것은 천문학적 자산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문학적 재산을 갖고 있어도 내 육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문학적 천체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신 천국, 천국적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적 자산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입장에서 볼 때 스테반의 육체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귀중하고 귀중해서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지마는, 하나님이 천국재산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스테반이라는 사람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기로 작정 하시고 볼 때는, 스테반의 육체는 안 쓰는 만 원짜리라는 겁니다.
안 쓰는 일 원짜리가 아니에요.
가치가 있어요.
여전히 만 원짜리인데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제일 비싼 것인데, 천국적 자산을 갖

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천국의 자산과 대놓고 볼 때는, 쓰지 않는 볼펜과 동급이라는 겁니다.
안 쓰는 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스테반이 보는 겁니다.
마음이 천국부자가 되었습니다.
없는 사람한테는 2,3천 원이 재산의 전부인 상황이 자주 닥치는 사람에게 만 원이면 유동자산급이지마는, 100억을 갖고 있고 10조를 갖고 있고 하는 사람들에게 만 원짜리는, 그 자식도 책상 위에 만 원짜리가 나동그라져 있는 상태인데, 그걸 집어서 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만 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만 원이라는 게 귀중한 액수이지마는, 가치 있는 액수이지마는, 너무너무 많다보면, 안 쓰는 볼펜과 동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 한다는 얘기는,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의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저는 봤어요. 기름 값 몇 페니 싸게 주는 주유소를 찾아서 꼭 거기서 기름을 넣는 걸 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
부자가 무섭더라고요.
아마 만 원짜리가 나뒹굴어 다니는 거는, 그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 천국을 갖고 있는 하나님 자식일 경우에, 육체가 갖는 의미가 바로, 하늘나라로 가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있어서 안 쓰는 볼펜과 동급인 안 쓰는 만 원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켓 아시죠?
우리가 나로호 인공위성을 궤도 위에 올리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꼭대기에 올라간 인공위성보다 발사하는 과정 중에 궤도에 진입되는 과정에서 다 버려지는 그 로켓의 몸체가 더 비쌉니다.
발사대만 해도 40~50억 간대요, 근데 40~50억을 한 순간에, 몇 초 만에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단계 로켓 떨어져 나가고, 2단계 로켓 떨어져 나가고, 맨 꼭대기의 3단계가 진입을 하면, 2단계, 3단계의 로켓 값이 수백억씩 하는데 그거 다 버려도 좋아해요, 성공했다고.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체로 접하는 어떤 대상보다, 가족보다, 내 사업보다, 내 일보다, 심지어는 내 육체보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났고, 그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표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소중한 육체가 없고, 육체를 통해서 만난 소중한 가족이 없다 그러면, 소중한 이삭과 소중한 사라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버리고 이삭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육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육체를 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었기에 육체를 버리면서, 하늘나라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몸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놨을 때, 이 인공위성보다 몇 십 배 더 비싼 발사대, 1단계 2단계 로켓을 다 한 순간에 소모해버렸지만,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에선 제일 귀중한 게 내 목숨인데, 제일 귀중한 목숨을 안 쓰는 만 원짜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제일 귀중한 목숨이 안 쓰는 만 원짜리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만큼,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천국이 큰 것이에요.
천국을 제1 현실로 느끼게 되면, 내 몸보다도 더 앞선 현실로 천국을 느끼고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주님을 제1 현실로 내가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육체의 값은,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 앞에서 내 육체의 값은, 안 쓰는 볼펜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안 쓰는 만 원짜리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 원짜리 몸을 가지고 재벌 총수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만 원짜리 몸으로 이천 원, 삼천 원짜리 일에 평생을 바친 겁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내 목숨 값이 천하보다 비싸요.
이 세상의 어떤 재벌도,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를 방문 했더만요.
박 근혜 대통령과 만나는 장면도 신문에 나오던데, 빌 게이츠의 전 재산도 천하보다 비쌀 수

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삼천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값이 만 원이고, 천하를 다 얻어도 내 몸값보다 작으니까 한 칠팔천 원 된다고 치면, 재벌의 재산이라는 게 1, 2천 원 주면 많이 쳐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보면 일, 이천 원짜리라는 거예요.
내 몸도 만 원짜리인데, 그 만 원짜리는 안 쓰는 볼펜과 동급인 수준으로 가치가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몸을 기준으로 해서, 칭기즈칸이 유라시아 대륙을 다 점령했다,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했다? 삼천 원. 많이 쳐줘서 삼천 원어치 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버둥거리지 말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내 몸이 안 쓰는 만 원짜리로 여겨질 수 있을 때까지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십자가 말씀 붙잡고 제로 되면서 살아가는 것을 평생의 과제로 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느낄 수 있고, 천국을 제1 현실로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게 이미 순교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땅에서 발을 떼면서 천국을 갖게 되면서 그 귀중한 몸이 안 쓰는 만 원짜리가 돼버리고, 이 만 원짜리의 용도는 이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내 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일에 쓰여 질 것입니다.
그 쓰실 일이 없으면, 로켓 발사대 없어지고 궤도에 올려놓으면 성공인 것처럼, 그냥 죽으면 되는 겁니다, 죽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죽기가 무섭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서, 성령이 충만한 정도가 약해서, 그래서 하늘이 내게 제1 현실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 목숨이 소중하고, 이 목숨을 통해서 하는 일이 귀하고 그런 거예요.
마치, 제가 결혼초기에 집사람 주머니 다 통틀어 이삼천 원만 생겨도, 정말 그 이삼천 원이

소중해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삼천 원짜리의 성공을 위해서 재벌 총수들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노력 한다는 것은, 오백 원짜리, 삼백 원짜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만 원짜리,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내 몸이, 안 쓰는 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동안에, 그 상황을 내가 만들어야 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스테반처럼, 베드로 사도가 그때 순교하진 않아요, 나중에 순교하지요.
그러나 순교하기 전까지 살아가는 모습은 이미 스테반 집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는다 그래도 잠을 쿨~쿨 자는 겁니다.
아! 부러워요. 부러워.
자기 목숨 값을 안 쓰는 만 원짜리로 취급할 정도로, 천국이 제1현실로 천국부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천국 부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목숨이 안 쓰는 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안 쓰는 만 원짜리를 기초로, 삼사천 원짜리의 성공을 위해서, 재벌 되겠다고 그러고, 대통령 되겠다고 날 뛸 것이 아니라, 제일 소중한 만 원짜리가 안 쓰는 볼펜과 동급이 될 정도까지 천국을 내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 주님과 연합해서 세상에 대해 죽고, 천국이 나의 제1현실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세상을 나가 살고, 또다시 기도하고 살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성령님의 충만이, 충만한 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강하게 이어져 나갈 때, 나는 목숨에 대해서 안 쓰는 만 원짜리 같은 생각으로 대할 것이고, 내가 그런 생각으로 만 원짜리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 놓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쓰시다가, 로켓 발사대처럼 치워 버리고 나의 영혼을 하늘로 끌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떡하든지 바쁜 시간 속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 주셔서, 어떡하든지 천국부자가 되게 해 주시므로, 가장 세상에서 귀한 이 만 원짜리 육체가 안 쓰는 만 원짜리가 될 수 있을 지경까지 우리를 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